

해안 쓰레기 절반은 '꽂초·플라스틱'

제주환경운동연합 5개월 수거한 쓰레기 조사 결과 담배꽂초 22.9%·플라스틱 22.5%... 비닐류도 10%

제주 해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꽂초'와 '플라스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제주줍깅'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해안쓰레기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시 내도동 알짜지해변과 김녕해수욕장, 광지한담해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변, 호동동 쇠소낙해변, 성산을 신앙해변에서 진행됐으며, 연인원 115명

이 총 497.8kg(6947개)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6947개의 해안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담배꽂초가 1594개(22.9%)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파편류 1569개(22.5%), 각종 비닐류 702개(10.1%), 낚시줄·낚줄 등 끈류 610개(8.8%), 페트병·병뚜껑 596개(8.6%)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담배꽂초는 해변에서 피운 담배가 그대로 버려진 경우 외에도 길가·빗물받이 등에 버려진 담배꽂초들이 빗물에 의해

해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하루 1200만개의 담배꽂초가 버려지고, 이 중 45만개에서 최대 230만개까지 해안으로 유입된다. 이처럼 버려지는 담배꽂초는 90% 이상이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돼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 해양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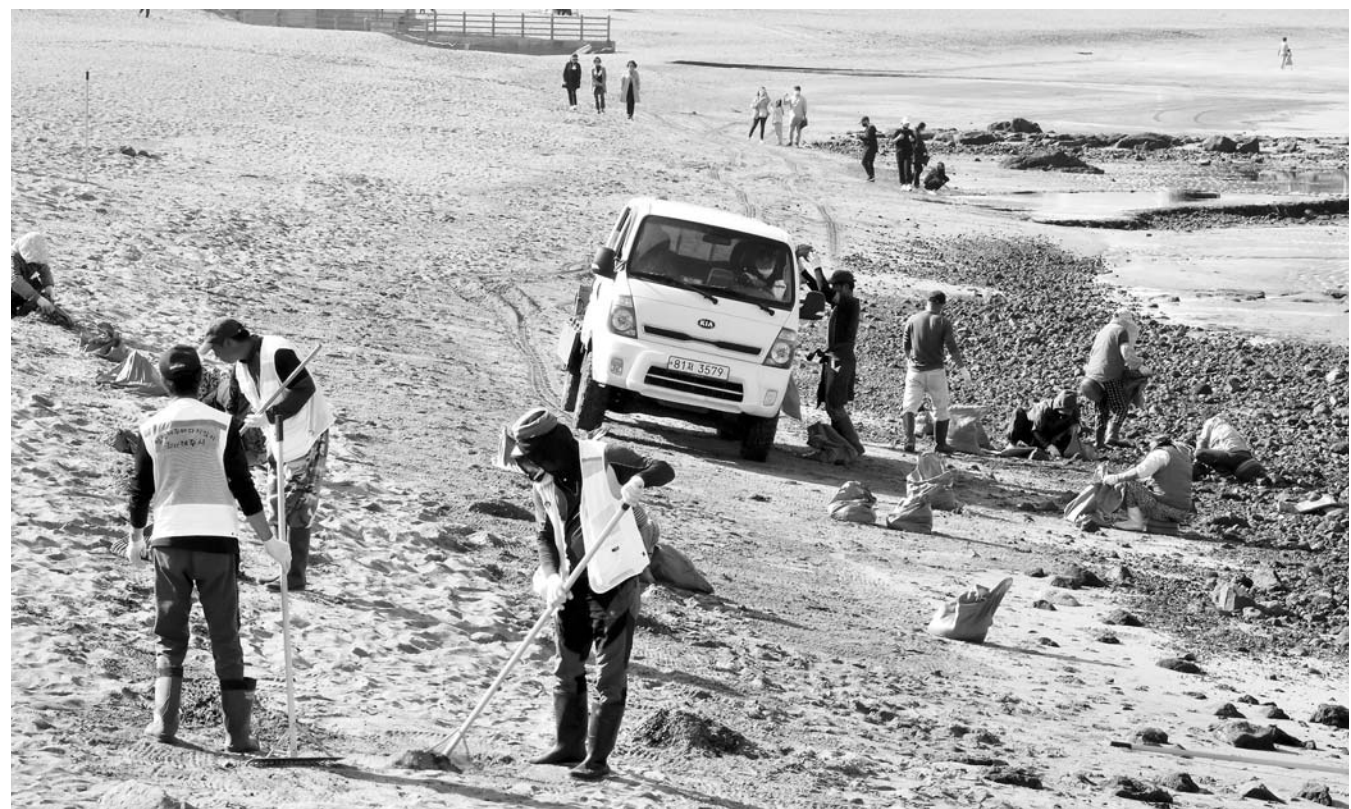
이어 플라스틱 파편류는 어떤 제품에서 유래된 것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생활계 쓰레기가 상당량 발견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로 분류되는 빨대와 식기류, 음료수병, 병뚜껑, 컵 등이 상반기 391개 발견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618개나 확인됐기 때문이다. 각종 비닐류도 상반기에는 201개를 수거했는데 하반기에는 갑절 이상인 501개가 수거됐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에 주요 해변에 대한 '연중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했다"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제주도가 속고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26일 바다지킴이들이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낚시어선 243척 대상 코로나 예방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17일까지 낚시어선 243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한정된 공간 내 낚시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방역 실효성을 높이고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편의를 위해 전문 소독업체가 낚시어선 정박항·포구를 방문해 소독을 실시하는 현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독 주기는 낚시어선 1척당 2주에 1회이며, 낚시어선업자는 소독업체에서 사전 공지한 일정에 맞춰 도내 모든 항·포구에서 소독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말·연휴 등으로 낚시객 증가가 예상될 경우 어선별 추가 소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명절 및 휴가철 연휴 시 7회에 걸쳐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올 8~9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승선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지도·홍보활동도 전개했다. 고대르기자

헤어진 연인에 욕설전화·협박문자 50대 '스토킹 처벌법' 혐의 첫 입건

관련법 '3년이하 징역' 명시

제주에서 첫 '스토킹 처벌법' 입건 사례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이상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수 차례 협박 문자

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지난달에도 B씨를 폭행한 전력 등을 고려해 스톱킹 처벌법으로 입건했다.

한편 스톱킹 처벌법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범칙금만 부과됐던 스톱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올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송은범기자



수도권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22건 적발 자치경찰단, 유통업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2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사진

이번 특별단속은 비상품 감귤 유통의 원천 차단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항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mm, 극대과) 9건·1.5t 과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mm, 극소

과) 13건·1.7t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겹표면 표준 규격품판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고대르기자

불법그물로 짝살이 조업 申어선 나포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족자원을 깎살이하려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31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유망·148t·승선원 16명)를 발견했다.

제주해경서는 같은날 오후 9시쯤 해상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실

시했고, A호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입어규칙'에서 정한 그물코 간격 50mm보다 촘촘한 43.4mm로 된 그물로 어획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제주해경서는 A호를 나포해 26일 오후 1시22분쯤 제주항 정박지로 끌고 왔으며, 향후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조업 어선에서 둔기 폭행 60대 실형

조업 중인 갈치 어선에서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쯤 갈치어선 갑판에서 어획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묶어 놓은 풍줄(돛을 내리는 줄)이 마음에 들지 않자 "죽여 버린다"며 둔기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1세기 농업은 미생물 농법으로

가이아 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재 부스트 팜 ⇒ 탄생

사용방법 ○ 20ℓ(1말)을 100배(100말)희석 1,000평 관주
○ 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

사용효과 ○ 질병 예방(세균성, 곰팡이성) ○ 토양 이끼 제거
○ 당도 · 과중 증가, 저장성 증대 ○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
○ 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육토로 바꿈

사용시기 ○ 거름(퇴비)을 시비한 후 관주 ○ 영양 생장 · 비대기때 관주
○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

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
010-2633-5349 부영인

공택이 감귤 유통상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진정한 제주축 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 · 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지

뿌리혹병의 경감

핵심 기술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G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